

물가·가계부채 부담에...한은, 기준금리 9연속 동결 전망

역대 최대 차이 나는 미국과의 금리 차 더 늘릴 이유도 없어 전문가들 "미국 6월께 낮추면 하반기에나 인하 고려 할 듯"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오는 22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만큼 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여전히 물가 관리를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어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내리면서 역대 최대

수준(2.0%p)인 두 나라 간 금리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이 6월께 인하를 시작하면 한은도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의 킷을 완화 쪽으로 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아직 금리를 낮출 만큼 물가와 가계대출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김용 한은 부총재보도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산물 등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다"며 "당분간 물가 둔화 흐름이 주춤하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물가가 2.8%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다시 3%대로 오를 가능성이 크고,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뿐 아니라 미국도 물가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아 금리 인하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충전을 앞두고 쏟아지는 개발 공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들쭉이는 점도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월까지 10개월째 계속 불어나고 있다. 특히 1월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5조 3000억원)이 4조9000억원 늘었는데,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1월(+5조원) 다음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지난달 11일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당시 회의에서도 한 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와 기대의 안정 여부를 우선시하면서, 민간 부채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른바 고물가 시기의 마지막 국면에서

너무 일찍 통화정책 완화로 돌아섰다가 물가 안정 기 진입 자체가 무산되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목표에 이르기 직전 최종구간) 리스크'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한은의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0.3%)은 전문가의 전망치(0.1%)를 크게 웃돌았다.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준이 5월 이전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도 크게 꺾인 상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일러야 2분기, 늦으면 3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는데 한은이 먼저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은행, 광양시 소상공인 Sunshine 상생금융 협약

18억원 특례보증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6일 광양시청에서 광양시,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광양시 소상공인 Sunshine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박성우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권 자금조달이 어려운 광양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준비됐다. 광주은행은 5000만원을 출연해 총 1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광양시는 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광양시 소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2년이다.

박성우 광주은행 부행장은 "고물가 및 경제침체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



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한 이번 업무협약이 경영안정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밀착 상생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강원도 감자·옥수수 맥주 맛보세요"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강원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수제맥주 브랜드 '감자 아일랜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22일까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감자 아일랜드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 감자아일랜드는 강원도에서 생산한 감자, 옥수수, 단팥, 사과, 복숭아 등으로 만든 수제맥주를 선보이며, 행사 기간 맥주시음 이벤트와 맥주에 어울리는 안주도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호남 중소기업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중소건설단체 등 결의대회

호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회원 4200여명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인들의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처음 열린 것을 시작으로 수도권(2월14일)에 이은 두번째 지역 순회 결집 행사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

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30여 중소기업 단체 회원들이 운집했다. 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4만여 개인 것을 감안하면 10곳 중 1곳이 결의대회에 참여한 셈이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 즉각 처리하라"며 각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중처법이 산업현장 내 혼란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드는 무리한 법안이라며 법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 대표로 발언대에 선 박경재 상상건설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전히 '금사과·금배'...농식품부, 166억원 할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66억원을 투입해 사과와 배 등 일부 가격 불안 품목을 할인 지원을 지속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은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 이후 배추·무 등 노지채소와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안정세에 들어섰다"며 "지난해 생육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와 시설채소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참외 등 대체 과일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원을 투입해, 값 비싼 사과·배 중심으로 할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오렌지, 대파, 닭고기, 계란 가공품, 열대·냉동 과일, 과일 가공품 등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및 할당관세 물량을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80.26 (+31.50)
↑ 코스닥	858.47 (+0.87)
↓ 금리(국고채 3년)	3.397 (-0.008)
↓ 환율(USD)	1335.20 (-0.20)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